



04 공감 동화

정글북

10 읽고 듣는 오페라

<피델리오>
'말할 수 없는 기쁨'

14 생활의 발견

폴리프로필렌과 지폐

32 주요 경영활동

올해의 시민영웅 시상

통권 제469호 발행일 2020년 12월 8일 발행처 에스-오일 주식회사 홍보팀
주소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 192 홈페이지 www.s-oil.com E-Mail sabo@s-oil.com
제작 ㈜디자인소호 02-514-5164 · ㈜성환인쇄 02-2273-0583

MADE 함께 만드는 가치

04
공감 동화
[협력] 정글북

06
고전 속 핵심가치
[열정] 마부정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진

IN 우리 안의 성장판

08
스포츠라이트
완주 향한 끈기
[트라이애슬론과 지구력]

10
읽고 듣는 오페라
<피델리오> '말할 수 없는 기쁨'

12
언제나 건강
내 몸 정수기
[만성콩팥 질환]

14
생활의 발견
돈의 진화
[폴리프로필렌과 지폐]

16
이달의 활력평가
12월 탐구영역 [연말]

18
터벅터벅 소도시
[사우나 본고장]
핀란드 탐페레

22
간이역 산책
루돌프 기다리는
초록 협곡 철길 마을
[봉화 분천역]

26
지식 한 뼘
초원 위 온돌방
[지세이버]





표지 속 동화

정글북

정글보다 복잡하게 얽힌 인간관계 속에서 더불어 사는 삶의 가치는 소중합니다. 인간 아기였던 모글리는 강인한 잠재력을 깨우쳐준 정글 친구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 위기를 이겨내고 성장해갑니다. 다름을 포용하는 협력은 공동체를 성공의 길로 이끄는 중요한 덕목입니다.

*관련기사 4쪽

S-OIL 앞서나가는 에너지

28

함께하는 풍경

토스트마스터즈
오픈하우스 행사

30

두런두런 이야기방

임원 가족 책 기증 사연

31

주요 경영활동

에너지 빈곤 가정 난방유 지원
올해의 시민영웅 시상
무재해 500만 안전인시 돌파
안전 회의

36

단신

11년 연속 DJSI 월드 기업 선정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기부금 전달
'대한민국 CEO 명예의 전당'
브랜드전략·정유/에너지사업 부문 수상
'한국의 경영대상' 브랜드경영 부문
종합대상 수상
100만 고객 모바일 주유권 이벤트
사보 <S-OIL> 디지털 전환

39

임직원 동정

40

팝업 정보창

일상 지키는 안전

42

독자마당

10



31



32



34



22





공감 동화

순수한 마음속 동화를 다시 꺼내드립니다. 익숙한 명작동화로부터 핵심가치에 이르는 지혜를 얻습니다.

제12화 [협력]

같이 사는 길

정글북

글. 조정현(<동화 넘어 인문학> 저자)

연약한 인간 아기였던 모글리는 정글에서 10여 년을 생존한다.

스승이자 친구였던 흑표범 바기라, 곰 발루 덕분이다. 다른 존재를 포용하고, 나아가 다름을 강점으로 발전시킨 정글북 이야기는 서로의 성장을 이끌어 살아가는 협력(Collaboration)의 가치를 전한다.

작가 조지프 러디어드 키플링(Joseph Rudyard Kipling)은 영국 수상 가문의 자손이면서 인도에서 태어났다. 그는 다양한 문화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19세기 말 인도에서 여러 경험을 쌓으며 자란다. 그 기억은 시와 소설, 동화, 민요 모음집 등 400편 가까운 문학작품으로 승화된다.

대표작은 단연 <정글북>이다. 결혼 뒤 어린 딸의 행동을 모티프로 다문화적 관점과 기발한 상상력을 더해 이야기를 탄생시킨다.

숲에서 호랑이 쉬어칸에게 쫓겨 부모와 헤어진 아기 모글리가 우연히 늑대굴로 들어가면서 흥미로운 장면들이 펼쳐진다. 쉬어칸에 대적하기 위해 정글 속 친구들과 함께 떠나는 위대한 모험을 보여준다.

이 역작은 1907년 최연소 노벨문학상 수상의 영예를 안겼다. 기록은 아직까지 깨어지지 않고 있다. 그 사이 <정글북>은 수많은 애니메이션과 영화로 재탄생한다. 월트 디즈니의 애니메이션 유작으로도 만들어졌다.

인간 소년 모글리와 정글의 동물들이 함께 살아가는 이야기가 오늘날까지 변주돼 특별한 영감을 불어넣는다.



최고 Excellence

열정 Passion

정도 Integrity

협력 Collaboration

나눔 Sharing

우리는 한 팀으로 함께 일하며 지식과 기회, 경험을 공유하여 더 큰 성공을 이뤄냅니다.

성장 이끄는 도움

늑대 부모가 인간 아기를 키우겠다고 하자 늑대 무리는 반기를 든다. 결국 늑대 부모는 정글 의회에 이 안건을 상정한다. 정글의 법칙에 의하면 양자를 들이기 위해서는 부모 외에 두 마리의 지지자와 충분한 대가가 있어야만 한다. 이에 표범 바키라와 느린 곰 발루가 나선다. 그 둘은 자신들이 사냥한 고기를 늑대 무리에게 내줌으로써 대가를 치른다. 늑대 부모는 인간 아기에게 정글 언어로 개구리를 의미하는 모글리란 이름을 지어준다. 적과 싸울 발톱이나 이빨, 추위와 더위를 막을 털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글리에게는 특별한 동료이자 스승인 늑대 가족과 바키라, 발루 그리고 비단뱀 카아가 있었다. 이들은 정글에서 살아남는 실질적인 방법부터 정글살이에 필요한 덕목까지 가르친다. 이들을 통해 모글리는 정글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한 자신의 몸을 지키는 법을 알게 된다.



협력 선순환

“너는 절대 혼자가 아니야.
내가 지켜줄게!”

<정글북>* 중에서

* <정글북>을 최초로 출간한 영국 맥밀런 출판사와
공동 제작한 정글북1·2 수록 완역본
(정희성 옮김·사파리·2018)



바키라, 발루, 카아 등의 예상대로 인간 아기 모글리는 모든 것을 빠르게 배워 나간다. 또한 인간의 학습능력으로 배운 것을 응용해 동물이 상상할 수 없는 문제해결력을 발휘한다. 정글 속 모험을 겪고 팀원, 혹은 리더의 역할을 능히 해내는 모글리로부터 동물들도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를 터득한다.

아낌없는 지지는 모글리를 강인하게 성장시킨다. 모글리가 받은 도움은 긍정의 힘이 되어 다시 정글을 향한다. 모글리의 성장이 주변 동물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결국은 함께 위기를 해결하고 정글을 지켜낸다. 영특한 두뇌에 기반한 상호작용은 늑대 무리와 친구들, 나아가 정글 전체를 지킨 선하고도 강력한 동인이다. 협력의 힘이다. 🌱



고전 속 핵심가치

핵심가치를 되새기며 부단히 나아갑니다. 사자성어에 얹힌 고전 이야기 속에서 핵심가치를 생각합니다.

馬不停蹄

핵심가치
[열정] 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진

글. 박수밀(고전문학자)



— 멈춤 없는 도전

2020년이 저물어 간다. 올 한 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가 불확실성의 위기 속에서 일상의 멈춤을 감내하며 극복해나가고 있다. 지금의 어려움이 저물어가는 해와 함께 지나가기를 모두가 염원하는 때다. 새로 맞이하게 될 2021년은 신축년, 흰 소띠 해다. 소는 참을성이 많고 부지런한 동물이다. 특히 흰 소는 강인하고 추진력이 강한 동물로 여겨진다. 소가 뚜벅뚜벅 앞을 향해 걸음을 이어간다면 말은 뒷걸음질 없이 힘차게 달리는 동물이다.

마부정제

달리는 말은 말발굽을 멈추지 않는다

馬 不 停 蹄

馬

말 마

1. 말 2. 벼슬의 이름

不

아닐 부

1. 아니다 2. 못하다

停

머무를 정

1. 머무르다 2. 멈추다

蹄

굽 제

1. 굽 2. 발



마부정제(馬不停蹄)는 달리는 말은 말발굽을 멈추지 않는다는 뜻이다. 원나라의 유명한 희곡작가인 왕실보(王實甫)의 작품 <여춘당(麗春堂)>의 2막에서 “적을 이기려면 재빠르게 손을 써야 하고, 공격을 하면 말은 발굽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贏的他急難措手, 打的他馬不停蹄)”는 말에서 유래했다. 목표를 완수하려면 단호하게 추진해야 하며 일단 출발했으면 멈추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교훈을 전한다.

— 열정의 본질은 지속성

처음 일을 시작할 때는 에너지가 넘치고 자신감이 솟는다. 하지만 모든 일이 계획대로 순조롭게 되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좋아하는 일도 지칠 때가 찾아온다. 금세 이를 것 같던 일도 진행이 더디면 처음의 자신감과 의욕이 사라지고 만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될 줄 알았는데 어디까지 가야 하는지 답답하기만 하다. 하던 일을 접고 다른 일을 찾아 새롭게 열정을 쏟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열정은 단기간에 타오르는 불꽃이 아니다. 열정의 본질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밀어붙이는 지속성에 있다. 목표를 향해 중단 없이 꾸준히 내딛는 것이다.

조선 중기의 시인 김득신은 어려서부터 우둔하기로 소문났다. 배운 내용도 돌아서기만 하면 금세 잊어버렸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좋아하는 길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남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남보다 더 노력하는 길밖에 없음을 깨닫고 남들이 한 번 하면 열 번을 반복했다. 조선 중기 최고의 명창이었던 학산수는 매일 산속에 들어가 한 곡조를 끝낼 때면 모래 한 알씩을 주워 나막신에 넣은 뒤 모래가 나막신에 가득 차야 집으로 돌아왔다.

선택한 일에 집중하면서 포기하지 않고 한발 한발 내딛는 것이 진정한 열정이다. 새해에도 많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천천히 걸어도 황소걸음’이라는 속담처럼 소의 우직함으로 전진하는 새해를 맞이할 시점이다. 🌱

핵심가치 [열정] 되새기며
필사로 사자성어를 익혀보세요!

馬不停蹄

馬不停蹄

馬不停蹄

馬不停蹄

馬不停蹄

馬不停蹄



완주 향한 끈기

트라이애슬론과 지구력

글. 공규택(<경기장을 뛰쳐나온 인문학> 저자)

1982년 하와이 트라이애슬론 대회(철인 3종 경기)에 참여한 줄리 모스(Julie Moss)가 결승점 300m를 향해 기어간다. 그 모습이 방송으로 생중계되면서 전 세계 이목을 집중시켰다. 국내에 트라이애슬론이 알려지는 계기였다. 멀티 지구력을 요하는 트라이애슬론 이야기 속에서 목표를 향해 끈기 있게 달리는 조직의 지구력을 생각해본다.

그때 그 경기!

완주 위한 네 발의 집념

줄리 모스는 대학에서 연구 중이던 운동 생리학 논문을 위해 처음 대회에 참가했다. 마라톤 완주 2회 정도의 경험뿐이었던 그녀에게 트라이애슬론 대회는 무모한 도전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라톤에서 예상 밖으로 선전하며 선두로 달리고 있었다. 결승점 300m를 앞섰을 즈음 그녀는 다리에 힘이 풀리기 시작했다. 건다가 쓰러지기를 반복하던 찰나, 2위로 달리던 선수가 그녀를 앞질렀다. 그 순간부터 30초 동안 TV를 통해 수백만 명의 시청자들이 보는 가운데 그녀가 네 발로 기어가 결승점을 통과하는 모습이 생방송으로 송출됐다. 누구의 도움 없이 결승점까지 완주한 줄리 모스의 불굴의 집념은 전 세계적으로 트라이애슬론이란 종목을 알리는 상징이 됐다. 그녀는 1984년부터 하와이 대회 5연패를 달성하는 전무후무한 기록으로 명예의 전당에 올랐다.



Triathlon



모바일기기로 QR코드를 찍으면
해당 스포츠 관련 장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포츠 잡학사전

1+1+1=1

트라이애슬론은 수영·사이클·마라톤 세 종목을 연이어 겨루는 경기다. 극기와 인내력을 요하는 내구성 경기로 각 종목의 시간을 합해 순위를 결정한다. 1970년대 미국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 해변에서 인명구조원들의 복합운동으로 행해진 데서 시작됐다. 수영 3.9km, 사이클 180.2km, 마라톤 42.195km가 기준이지만 엄격한 규정은 없다. 1978년 15명이 출전한 하와이 대회로 출발해 2000년 시드니올림픽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다. 거리에 따라 스프린트(sprint)·인터내셔널(international)·롱(long)·아이언맨(ironman) 코스로 나뉜다. 줄리 모스가 1982년 도전한 대회는 아이언맨 경기다.

트라이애슬론은 세 종목을 고루 잘 하는 것 이상으로 연결성 훈련이 중요하다. 가령, 수영 구간에서는 사이클과 마라톤을 위해 상대적으로 힘을 아끼는 전략이 필요하다. 바다에서 수영할 경우 조류 흐름을 파악해 에너지를 아끼는 방법도 있다.

조직 속 플레이

끈기 있는 전진

트라이애슬론에서 달리기는 가장 고통스러운 마지막 구간이다. 수영과 사이클로 체력이 소진된 이유도 있지만 오랜 시간 사이클에 적응된 근육을 순간적으로 달리기에 적합하게 근 전환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초보자의 경우 이 구간에서 제대로 걷지 못하고 쓰러지기도 한다. 1982년 네 발로 기어 결승전에 들어간 줄리 모스가 그러했다. 그녀가 트라이애슬론의 아이콘이 된 이유는 포기하지 않음에 있다. 집념의 완주는 트라이애슬론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가치다.

한 해의 끝이 완전한 마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새해라는 다음 종목이 기다리고 있다. 조직이 세운 목표까지 완주하기 위해서는 힘의 안배와 전략적 전환이 필요하다. 끈기 있게 전진하는 지구력을 구성원과 공유해야 할 때다. 🌟





읽고 듣는 오페라

예술에서 반짝이는 영감을 얻습니다. 세계적 클래식 레이블들이 손꼽은 오페라 아리아 감상을 권합니다.

말할 수 없는 기쁨

<피델리오>

글. 정은주(클래식 음악 칼럼니스트)



모바일기기로 QR코드를 찍으면
'말할 수 없는 기쁨'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레오노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기쁨이여!
남편의 품에 다시 안기다니!

플로레스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기쁨이여!
레오노레를 다시 안다니!

레오노레 & 플로레스탄
고통의 깊은 어둠으로부터 기쁨이 날아올랐도다!

레오노레
그대의 손을 다시 잡을 수 있다니!

플로레스탄
오, 자비로우신 하느님!

레오노레 & 플로레스탄
내 품 안에 아내여, 아내여!
내 품 안에 그대여, 그대여!
오 하느님, 감사합니다!

플로레스탄
정말 당신이 맞소?

레오노레
그래요, 나예요!

플로레스탄
하늘의 축복이여! 레오노레!

레오노레
플로레스탄!

레오노레&플로레스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큰 기쁨이여!
내 품에 아내여, 아내여!
다시 내 품에 그대여!
오 하느님 감사합니다!

LEONORE
O namenlose Freude!
Mein Mann an meiner Brust!

FLORESTAN
O namenlose Freude!
An Leonorens Brust!

LEONORE & FLORESTAN
Nach unnennbarem Leide
So übergrosse Lust!

LEONORE
Du wieder nun in meinen Armen!

FLORESTAN
O Gott, wie gross ist dein Erbarmen!

LEONORE & FLORESTAN
Mein Weib, mein Weib, an meiner Brust!
Mein Mann, mein Mann, an meiner Brust!
O dank dir, Gott, für diese Lust!

FLORESTAN Du bist's!

LEONORE Ich bin's!

FLORESTAN
O himmlisches Entzücken! Leonore!

LEONORE Florestan!

LEONORE & FLORESTAN
O namenlose Freude!
Mein Weib, mein Weib, an meiner Brust!
Du wieder mein, an meiner Brust!
O dank dir, Gott, für diese Lust!

루트비히 판 베토벤 (1770~1827, 독일 작곡가)

어린 시절 아버지로부터 음악 교육을 엄격하게 받았다. 베토벤의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을 신동으로 만들려고 했으나 실패했다. 그러던 중 베토벤은 17세 때 하이든의 추천으로 오스트리아 빈으로 유학을 떠났다. 그때부터 피아니스트로 또 작곡가로 운명을 달리하는 날까지 전무후무한 인기와 성공을 누렸다. 청력에 이상이 생기는 등 음악가로 치명적인 질병을 앓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클래식 음악사에 획을 그은 주옥같은 작품들을 남겼다. 대표작으로 <교향곡 5번>, <피아노 협주곡>, 오페라 <피델리오> 등이 있다.



<피델리오> 작품 속으로

플로레스탄은 정치범 누명을 쓴 채 스페인 세비야의 한 교도소에 억울하게 갇힌다. 교도소장 피차로는 플로레스탄이 이미 죽었다는 소문까지 퍼뜨린다. 그러나 플로레스탄의 아내 레오노레는 자신의 남편이 교도소 깊은 비밀의 방에 갇혀있다는 사실을 알아낸다. 교도소장은 플로레스탄을 죽이라고 지시하지만 직원은 사형 집행을 거부한다. 극적으로 플로레스탄과 레오노레는 교도소에서 재회한다. 그때 교도소장은 칼을 꺼내 플로레스탄을 죽이려 하고 운명처럼 총리대신이 교도소에 도착한다. 모든 사연이 밝혀진 뒤 피차로는 감옥에 갇히고 레오노레와 플로레스탄은 행복한 사랑을 이어간다.

베토벤이 남긴 단 한 편의 오페라

#1

<피델리오>는 남편 구출 드라마다. 사라진 남편을 찾아 떠나는 레오노레의 험난한 여정이 비장한 음악과 함께 펼쳐진다. 평생 다양한 분야의 작품을 만든 베토벤이 만든 유일한 오페라이기도 하다. 사실 베토벤은 오페라 작곡에 별다른 흥미가 없었다. 그러나 당시 로시니 등 오페라 작곡가들의 연이은 성공이 일종의 자극이 됐다. 평소 작곡하지 않았던 오페라를 위해 베토벤은 많은 수정을 반복했다. 주인공 플로레스탄의 첫 아리아는 열여섯 차례나 고쳤는데 악보로만 무려 346쪽 분량에 달한다. 심혈을 기울여 만든 베토벤의 처음이자 마지막 오페라는 1805년 오스트리아 빈 극장에서 초연됐다. 관객의 큰 호응에도 베토벤은 만족하지 않고 악보를 끊임없이 수정했다. 초연 다음해에 제2판, 8년 뒤에는 제3판을 발표했다.

지고지순한 부부의 사랑 노래

#2

2막에서 가장 기쁘고 장엄한 장면에서 흐르는 플로레스탄과 레오노레의 이중창이다. 모든 문제를 해결한 두 사람이 느끼는 기쁨이 잘 드러나는 아리아다. 총리대신의 올바른 판결과 사랑의 힘을 플로레스탄과 레오노레가 한마음으로 부른다. 레오노레는 소프라노, 플로레스탄은 테너가 맡아 부른다. ‘아, 얼마나 좋은 기회인가!’, ‘황금에 눈이 멀지 않은 사람도 있지요’ 등의 아리아가 유명하다. 독일 작가 장니콜라 부이의 소설 <부부의 사랑>을 바탕으로 한 이 오페라의 원제목은 <레오노레>였다. 그러나 이미 여러 작품에 등장한 이름이라는 이유로 베토벤은 피델리오(남편에 대한 신의)로 제목을 고쳤다. 🌻

아는 만큼 들리는 오페라 상식!

리브레토 (libretto)

오페라나 오페레타·칸타타 등 극적 형식을 취한 오페라를 위해 쓴 가사나 대본을 말한다. 통상적으로 리브레토는 오페라 대본을 뜻한다. 오페라의 극적 이야기뿐만 아니라 문학적인 내용을 상징한다.

서정 비극 (Tragédie en musique)

프랑스 음악가 장바티스트 륄리와 그의 제자들이 18세기 중반까지 사용한 프랑스 오페라의 장르다. 서정 비극의 오페라는 그리스 로마 신화 속 이야기나 이탈리아 작가인 타소나 아리오스토의 낭만 서사시를 바탕으로 한다.



언제나 건강

모든 가능성의 기본은 건강입니다. 12대 만성질환을 중심으로 예방·관리·개선에 참고할 정보를 집약합니다.

내 몸 정수기

만성콩팥 질환

콩팥은 소변을 통한 노폐물 배설 외에 몸을 항상 일정한 상태로 유지하는 항상성 유지 기능, 몸에 필요한 여러 호르몬·효소를 생산, 분비하는 기능을 한다. 몸의 정수기와 다름없다. 심각한 증상이 나타나기 전까지 별다른 이상을 느끼지 못하는 만큼 평소 위험인자를 주의하고 건강한 생활습관을 만든다.

1월
심장
질환

2월
관절염

3월
당뇨병

4월
뇌혈관
질환

10월
악성
신생물

6월
간
질환

7월
정신·행동
장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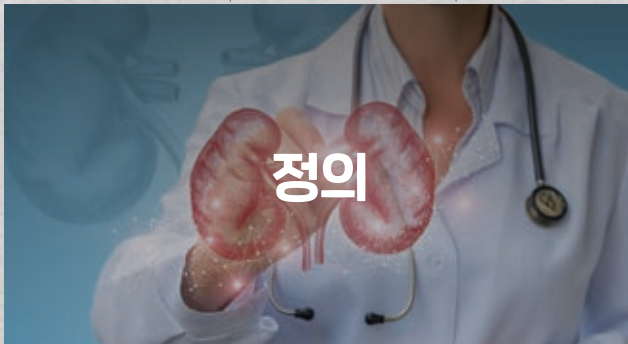
8월
호흡기
결핵

9월
신경계
질환

10월
갑상선
질환

11월
고혈압
질환

12월
만성콩팥
질환



정의

혈액 성분 일정 유지

양쪽 옆구리에 위치한 콩팥(신장)은 어른 주먹만 한 크기지만 하루 120~180ℓ의 혈액을 걸러준다. 콩팥으로 들어간 혈액 99%는 재흡수되고 1%인 1~1.5ℓ만 소변으로 만들어져 배출된다. 만성콩팥병은 이 기능이 감소한 것으로 소변·혈액검사를 지표로 평가한다.

환자는 성인 9명 중 1명

대한신장학회 자료에 따르면 국내 만성콩팥병 환자는 해마다 8.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성콩팥병 단계가 진행되면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정상인보다 10~30배까지 높아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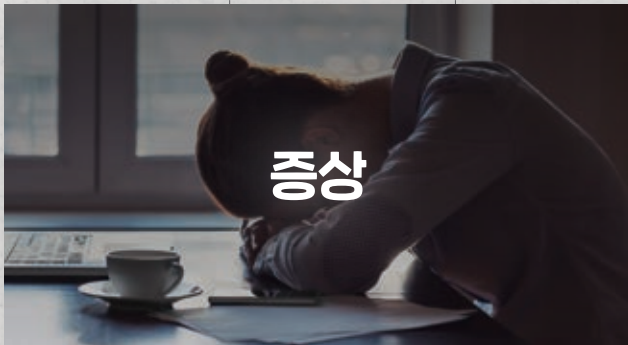
주요 원인

▶고령·비만·대사 이상

고령이나 가족력이 있는 경우 해마다 혈액검사와 소변검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비만과 당뇨 등이 있는 경우 혈액 투석이나 이식이 필요한 만성콩팥병 진행 위험도가 1.5배 증가한다.

▶흡연·고염식 습관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만성콩팥병 위험도가 1.8배 높다. 만성콩팥병 환자의 발병 전 나트륨 섭취량은 권장량보다 2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증상

콩팥병은 상당히 진행될 때까지 심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콩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노폐물이 소변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몸 안에 축적돼 두통부터 현기증, 혼수상태까지 유발하는 요독증이 생긴다. 또한 혈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고혈압을 일으키기도 한다.

주요 징후

- 피로감을 잘 느끼고 기운이 없음
- 식욕 저하
- 주로 아침에 눈이 푸석푸석함
- 구역감이 느껴짐
- 소변을 자주보고 특히 밤에 심함
- 집중력이 떨어짐
- 발과 발목 붓기 발생
- 밤에 손발이 저림
- 어지럽고 늘 피곤함



검사

혈액검사

콩팥 기능을 나타내는 혈액 내 크레아티닌(신장 기능검사)과 사구체 여과율을 확인한다. 특히 만성콩팥병의 주요 원인인 당뇨병과 고혈압 환자, 가족력이 있는 환자는 주기적으로 소변검사와 신기능검사를 진행해 조기에 만성콩팥병을 진단할 수 있도록 한다.

단백뇨 검사

만성콩팥병은 조기에 발견해 진행을 늦추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예방법이자 치료법이다. 단백뇨는 콩팥 손상을 나타내는 초기 증상이므로 정기적인 검사를 진행한다.



분류

만성 콩팥병 5단계

만성콩팥병은 3개월 이상 콩팥 손상이 있거나 사구체 여과율(혈관이 노폐물을 걸러내는 수치)이 $60\text{ml}/\text{min}/1.73\text{m}^2$ 이하로 감소했을 때로 정의한다. 질환 진행 정도에 따라 5단계로 분류한다.

- ▶ 1단계 : 경도 / 사구체 여과율 정상
- ▶ 2단계 : 경도 / 경도의 사구체 여과율 감소 $69\sim 89\text{ml}$
- ▶ 3단계 : 중등도 / 사구체 여과율 $30\sim 59\text{ml}$
- ▶ 4단계 : 중증 / 사구체 여과율 $15\sim 29\text{ml}$
- ▶ 5단계 : 신부전 / 사구체 여과율 15ml 이하(투석)



생활수칙

저염식·저단백식

1일 소금 섭취량이 11g 이상인 환자는 $6\sim 8\text{g}$ 섭취 환자보다 콩팥기능 악화 위험도가 1.6배 증가한다. 칼륨과 인 섭취 제한도 필요하나 식이제한은 검사 결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의사와 상담 뒤 시행한다.

- ▶ 저염식 권장 *일반 기준 2분의
- ▶ 칼륨이 많은 과일(바나나, 참외, 키위, 오렌지 등)·채소의 지나친 섭취 피하기
- ▶ 단백질 섭취량 조절 *하루 60g 의 고기 분량
- ▶ 금연 필수·술은 하루에 1~2잔 이하
- ▶ 주 3일 이상 30분~1시간 정도 운동 🌿



생활의 발견

어디에나 쓰이고 누구에게나 유용한 석유화학 제품을 만듭니다. 폴리프로필렌과 프로필렌옥사이드 소재의 일상용품을 중심으로 흥미로운 정보를 살펴봅니다.

돈의 진화

물품이나 금속 화폐는 재료 자체로 큰 가치가 있는 반면, 지폐 자체의 실물 가치는 표면에 적힌 액수에 비하면 매우 낮다. 하지만 동전에 비해 가볍고 더 많은 금액을 가지고 다닐 수 있다는 장점으로 오랜 시간 존재를 이어오고 있다. 지폐 재료의 변천과 함께 현대에 이르러 플라스틱 지폐의 활약이 눈길을 끈다. 지폐를 둘러싼 소재와 그 외 흥미로운 변천을 살펴본다.

폴리프로필렌과 지폐

폴리프로필렌(PP, polypropylene)

- ✓ 환경호르몬 비검출·뛰어난 내열성·내수성
- ✓ 지폐·식품용기·젯병·주사기 등 의료 기구와 약품용기의 주재료
- ✓ 우리회사 연산 40만5천 톤 생산

폴리머

고분자 화합물질을 총칭하는 말로 폴리프로필렌, 폴리에틸렌, 폴리염화비닐, 폴리스틸렌 등을 아우른다.

폴리프로필렌

프로필렌 분자를 길게 연결해 만든 중합체다.

무게가 가볍고 강도가 우수해 의자, 카페트, 식기 등 생활 속 다양한 제품에 사용된다. 환경호르몬 등 유해 물질이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 소재로 향균 기능까지 갖췄다. 강한 내열성으로 뜨거운 음식이나 음료를 담아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소재다.



모바일기기로
QR코드를 찍으면
'폴리프로필렌과 지폐'를
비롯해 다양한 콘텐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초

세계 최초의 지폐

중국 송나라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상인이 성행하면서 상인들이 동전이 가득 든 무거운 자루를 메고 이동하는 것에 큰 불편을 느꼈다. 이에 인쇄와 종이 기술로 10세기 말부터 지폐를 만들어 사용했다. 처음 만든 지폐는 상인들에게 돈을 맡겨 뒀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종이 문서에 불과했다. 따라서 지폐를 만든 상인이 자취를 감추면 지폐는 금세 휴지 조각이 되고 말았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원나라 때부터 나



라에서 보증하는 지폐를 발행한 것이 세계 최초의 지폐로 알려져 있다. 이 지폐를 가져가면 언제나 금이나 은으로 교환할 수 있었다. 중통원보교초, 지원통행보초 등 이름의 종이 지폐는 마르코 폴로를 통해 유럽으로 전해졌다.

목화솜

종이 아닌 면섬유 지폐

우리나라 지폐는 면섬유로 제작된다. 종이 원료인 나무가 아닌 목화솜이 재료로 쓰인다. 일반 종이보다 질기고 그림과 숫자가 깨끗하게 인쇄되는 강점이 있다. 컬러프린터로 위조지폐를 인쇄하면 잉크 번짐으로 그림이 흐릿해 진짜 지폐와 구분된다. 면섬유 지폐는 우리나라 외에도 미국과 일본 등에서 사용 중이다. 특히 한국조폐공사는 세계 최고 수준의 위·변조 방지 기술을 적용한 면섬유 지폐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명은 1천 원권이 4년 4개월, 1만 원권이 10년 1개월 정도로 세계 지폐 중에서 상위권에 속한다.



지폐의 순환

환경 친화적 재활용

폴리머 지폐는 인체에 무해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폴리프로필렌으로 만들어져 환경 친화적 지폐로 꼽힌다. 폴리머 지폐의 수명은 면섬유보다 2.5~5배 더 길다. 다만 수명이 다하면 면섬유 지폐와 마찬가지로 은행으로 회수된다. 폐기처분하는 면섬유 지폐와 달리 폴리머 지폐는 잘게 부숴 조각낸 뒤 높은 압력으로



녹여 건축 재료·배관 부속품·퇴비를 비롯해 가정·산업용 플라스틱으로 재활용된다. 🌱

투명한 지폐

위조 방지 기술

폴리머 지폐의 강점은 위조 방지 기능이다. 폴리프로필렌의 투명한 성질과 광택감 덕분이다. 특히 호



주 5달러 지폐의 투명창은 뒤쪽에 손을 대면 보일 정도다. 위·변조를 막기 위한 장치다. 메타메릭 잉크를 사용해 빛에 따라 투명창의 색이 변한다. 홀로그램 기법은 물론 좌우로 흔들면 숫자가 뒤집히는 기술, 시각장애인을 위한 입체적인 점 삽입까지 반영해 용이하게 제작할 수 있다. 탁월한 방수 재질로 세균 번식이 어려워 별도의 약품을 뿌리지 않아도 된다.

폴리머

폴리프로필렌·폴리에틸렌 지폐

1988년 호주에서 폴리프로필렌으로 만든 세계 최초의 폴리머 지폐가 등장했다. 그 뒤를 이어 뉴질랜드·캐나다·영국·중국·베트남·브라질·멕시코 등 50여 국가가 폴리머 지폐를 도입했다. 폴리프로필렌은 낮은 수분 흡수율 덕에 물에 젖지 않고 세균도 잘 번식하지 않아 화폐 재료로 적합하다. 면섬유로 만들어진 지폐보다 청결성·안전성·내구성 면에서 비교우위로 인정받고 있다. 코스타리카와 하티티에서는 화학섬유인 타이벡(Tyvek)을 사용한다. 고밀도 폴리에틸렌을 열과 압력으로 성형해 만든 소재다. 종이보다 질기고 가벼우며 신축성이 우수한 특징이 있다.

©
news.
coinupdate.
com





12월

탐구영역 [연말]

역사

1. 결핵퇴치 상징으로 자리매김한 이것은?



©대한경매협회

- ① 크리스마스 엽서 ② 크리스마스실
③ 헌혈 배지 ④ 연하장

2. 우리나라 제야의 종 타종 횟수는?



©경향신문

- ① 30번
② 31번
③ 32번
④ 33번

3. 다음 중 성격이 다른 단어는?

- ① 원단 ② 선달그믐 ③ 세밀 ④ 구랍

4. 스코틀랜드 방언으로 '그리운 옛날'을 뜻하는 곡으로 한 해를 보내는 행사나 학교 졸업식 등에서 애창되는 곡의 제목은?

- ① 스와니 강 ② 예스터데이
③ 올드랭 사인 ④ 클레멘타인

5. 동지(冬至)와 관계없는 것을 고르시오.

- ① 작은 설 ② 호랑이 장가가는 날
③ 보리의 이불 ④ 아세

생활

6. 일몰과 일출을 정의하는 기준은?

	일몰	일출
①		
②		
③		
④		

7. 크리스마스를 전후해 증시가 강세를 보이는 현상을 일컫는 말은?

- ① 캘린더 효과 ② 스노우렐리
③ 산타렐리 ④ 메리효과

8. 해가 수평선에 질 때 태양 윗부분에 1~2초가량 짧게 나타나는 이것은?

- ① 녹색 광선 ② 화이트 광선
③ 블루 광선 ④ 레드 광선

정답·해설

1. ② 크리스마스일

*자료 : 대한결핵협회

1904년 덴마크에서 세계 최초의 크리스마스일(Christmas seal)이 발행된 뒤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 대한결핵협회 창립 이래 60년 동안 단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꾸준히 크리스마스일이 발행되고 있다. 수익금은 결핵퇴치·결핵환자 지원 등에 쓰인다. 시대 흐름에 따라 스포츠 명사, 만화 캐릭터, 천연 기념물 등 다양한 도안을 선보이고 있다. 올해 주인공은 교육방송 EBS의 펭수 캐릭터가 선정됐다.

2. ④ 33번

*자료 : 두산백과

불교의 우주관인 28계 33천에서 유래했다. 이른 새벽 종루의 종을 치며 하루의 시작을 알린 조선시대 '파루'와 같이 새 시작을 알린다는 의미로 타종행사를 진행한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67년만에 처음으로 제야의 종 타종 행사가 열리지 않을 예정이다.

3. ① 원단

*자료 : 국립국어원

구랍·선달그믐·세밑 모두 한 해가 끝나가는 12월을 가리킨다. 원단은 새해 첫 날을 의미한다.

4. ③ 올드랭 사인(Auld Lang Syne)

*자료 : 두산백과

‘오랫동안 사귀었던~’이란 노랫말로 우리에게 익숙한 곡이다. 스코틀랜드 국민시인으로 추앙받는 로버트 번스가 쓴 시(詩)에 윌리엄 실드가 곡을 붙였다. 서정성 짙은 노랫말과 리듬이 애잔한 감성을 불러일으킨다.

5. ③ 보리의 이불

*자료 : 한국세시풍속사전

동지(冬至)는 한자어 그대로 겨울에 이르렀다는 뜻이다. 일 년 중 가장 밤이 길고 낮이 짧은 날이다. 올해 동지는 12월 21일이다. 이듬해가 시작되는 날이라 해서 아세(亞歲)라 불리기도 했다. 대설(大雪)은 동지에 앞서 찾아오는 절기로 ‘눈은 보리의 이불이다’라는 속담이 전해진다.

6. ④

*자료 : 한국천문연구원

일몰 시각은 태양 맨 윗부분이 수평선(지평선)과 닿아 아래로 사라지는 때, 일출 시각은 태양의 맨 윗부분이 수평선(지평선)에 나타나는 때를 말한다.

7. ③ 산타캘리(Santa Rally)

*자료 : 시사상식사전

미국에서 크리스마스를 전후해 기업 매출과 소비가 증가하며, 근로자들의 연말 보너스가 지급됨에 따라 투자자들의 심리가 긍정적으로 변화해 증시가 전체적으로 강세를 보이는 현상을 일컫는다. 산타클로스 이름에서 비롯됐다.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국내외 상황에 따라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캘린더 효과는 해마다 특정 시기마다 증시가 강세 또는 약세를 보이는 현상이다.

8. ① 녹색 광선(Green Flash)

*자료 : 기상청

해가 수평선 너머로 사라지기 직전 바다 위로 녹색 띠가 섬광처럼 나타나는 광학 현상이다. 1882년 프랑스 질 베른 작가의 소설 <Le Royon Vert>의 영어 제목을 통해 알려진 용어다. 녹색의 빛을 찾아 등장인물들이 스코틀랜드의 섬들을 돌아다니는 낭만적인 꿈과 모험을 그린 책이다. 🌈



터벅터벅 소도시

세계 곳곳에 오랜 가치가 살아 있습니다. '본고장'으로 일컬어지는 국외 소도시 여행 정보를 제공합니다.



Travel Information

이동시간	인천~헬싱키(비행기 약 9시간 30분) 헬싱키~탐페레(고속철도 약 1시간 30분)
시차	한국보다 7시간 느림
화폐	유로(1유로 ≈ 한화 1,319원)
교통수단	버스, 선박, 지하철(공사 중)



설원 휘감는

자작나무 향

[사우나 본고장]
핀란드 탐페레

글. 장인혜(여행작가)

뜨끈한 사우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성지는 바로 핀란드 탐페레다. 사우나가 자동차보다 많은 나라 핀란드에서도 탐페레는 공식적으로 '세계 사우나의 수도'로 추앙받는 도시다. 대부분 집집마다 사우나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호숫가와 도심 곳곳에 다양한 분위기의 공중 사우나가 자리 잡고 있다. 게다가 두 개의 커다란 강 사이에 위치해 있어 겨울이 되면 사우나에서 몸을 덥힌 뒤 얼음이 동동 떠 있는 호수에 퐁당 뛰어드는 사람들을 흔히 만날 수 있다.



세계 사우나의 수도

핀란드 헬싱키에서 북서쪽에 위치한 탐페레(Tampere)는 19세기 핀란드 산업혁명을 주도하면서 공업도시로 번성해왔다. 붉은 벽돌 건물과 높은 굴뚝이 만들어 내는 독특한 풍광은 도시의 역사를 보여준다. 핀란드에서 수도 헬싱키와 위성도시 에스푸 다음으로 인구(약 22만 명)가 많은 지역이다. 인구뿐만이 아니다. 핀란드 내에서 가장 많은 공중 사우나를 보유하고 있다.

2018년 핀란드 사우나 협회와 국제 사우나 협회(ISA)는 공식적으로 탐페레를 '세계 사우나의 수도'로 인정했다. 이 선언은 핀란드에서 가장 오래된 공중 사우나 '라야포르티 사우나(Rajaportti sauna)'에서 발표됐다. 나시야르비(Nasijarvi)와 피하야르비(Pyhajarvi) 호수 사이에 자리잡은 독특한 자연환경과 활기찬 도시 분위기는 핀란드식 사우나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전통 방식의 핀란드식 사우나는 숲속에 있는 작은 오두막에서 자작나무로 불을 피워 사우나를 한 뒤 바로 옆 호수에 뛰어드는 것이다.

사우나는 핀란드어 중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번역되지 않고 사용되는 단어다. 그만큼 핀란드 사람들의 사우나에 대한 애정은 상상을 초월한다. 보통 가정에 사우나가 있으며, 작은 평수의 아파트에는 공용사우나가 있다. 게다가 숙박시설, 체육시설, 국회까지 거의 모든 시설에 사우나가 보급돼 있다.

우리나라에도 한증막과 찜질방 문화가 있지만 핀란드의 사우나 강도를 당해낼 수 없다. 수증기를 낼 때면 순간 온도가 100℃ 이상 오르며, 냉탕은 살얼음 낀 호수다. 우리가 사우나를 하며 식혜와 맥반석 달걀을 먹는 것처럼 핀란드인들은 사우나를 하면서 간식으로 소시지를 구워먹는다. 또한 사우나를 하면서 자작나무 잎으로 몸을 두드리는데 특유의 향이 몸에 배어 적당한 자극을 주면서 혈액순환을 돕는다.



탐페레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장소

산타마을, 자일리톨 껌, 만화 캐릭터 무민, 오로라까지 핀란드는 남녀노소가 사랑하는 아이템을 명물로 지닌 나라다. 특히 탐페레에는 이 모든 요소를 즐길 수 있는 명소가 곳곳에 있어 '핀란드 속의 작은 핀란드'라 칭할 만하다.

❶ 뤼니키 전망대(Pyynikki Observation Tower)

고전적이긴 하나 낮은 도시를 방문하면 도시 전체를 내려다보는 가장 높은 전망대에 한 번쯤 올라봄직하다. 비록 26m밖에 되지 않지만 전망대가 위치한 공원 자체가 지대가 높아 탐페레 시내를 한 눈에 조망하는 데 부족함이 없다.

❷ 무민 박물관(Moomin Museum)

핀란드를 이해하는 키워드 중 하나인 캐릭터는 '무민'이다. 탐페레는 세계 유일의 무민 박물관이 있는 도시로 전 세계 무민 팬들의 성지다. 무민을 탄생시킨 핀란드 국민 작가 토베 안손이 그린 원화를 포함해 2천 점의 작품이 전시돼 있다. 무민 캐릭터가 등장한 책이나 애니메이션을 두루 접할 수 있어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즐겁게 관람하기 좋다.

❸ 탐페레 시장(Tampere Market Hall)

1901년 문을 연 탐페레 시장은 북유럽 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실내 시장이다. 탐페레의 명물인 검은 소시지 무스타마카라(mustamakara)를 비롯해 생선, 고기, 과일, 채소, 빵, 치즈 등을 판매하는 상점 32개가 늘어서 있다. 가격도 저렴하다.

❹ 탐페레 대성당(Tampere Cathedral)

중앙역에서 멀지 않은 곳에 붉은 벽돌 지붕 장식의 동화 같은 건물이 멀리서도 눈에 띈다. 1902년부터 1907년 사이에 지어진 이 성당은 핀란드의 건축가 라르스 손크(Lars Sonck)가 설계했다. 성당 내부에 들어서면 핀란드 상징주의 화가 휴고 심베리(Hugo Simberg)의 파격적인 프레스코화와 스테인드글라스를 만나볼 수 있다. 주변이 공원으로 조성돼 있어서 산책 겸 돌아보기 좋다. 🌿



탐페레 인기 사우나 BEST 3

▶ 핀란드에서 가장 오래된 사우나 ◀

라야포르티 사우나(Rajaportti sauna)

📍 www.rajaportti.fi

2018년 '세계 사우나의 수도' 선포식이 열린 상징적인 공간이다. 1906년 처음 문을 연 뒤 1989년부터는 시에서 직접 운영하며 카페와 마사지 시설이 추가로 문을 열었다. 탈의실, 사우나, 목욕탕 모두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거의 변함이 없다. 유일한 게 달라진 점이라면 남녀 공간을 나누기 위해 벽을 세운 것뿐이다. 여전히 나무를 땀감으로 사용하는 거대한 벽돌 스토브가 특징이다. 아늑한 안돌 카페에서는 사우나를 하면서 먹을 수 있는 소시지와 수프, 맥주 등을 판매한다. 한 번에 12명 정도 수용할 수 있으며 평일 6유로(약 8천 원), 주말은 10유로(약 1만3천 원)에 이용 가능하다.

▶ 사우나 뒤 호수 수영 ◀

라우하니에미 사우나(Rauhaniemi Sauna)

📍 www.rauhaniemi.net

핀란드 현지인처럼 사우나를 마친 뒤 호수에 풍덩 빠져 수영을 하고 싶다면 이곳이 제격이다. 1929년 개장한 라우하니에미 사우나는 나시야르비 호숫가에 위치해 호수 수영을 하기에 완벽한 공간이다. 매표소 앞 대형 그릴에서 구워 먹는 소시지가 인기며 여름에만 운영하는 카페가 있다. 입장료는 7유로(약 9천 원)부터이며 평일에는 오후 3시부터 8시까지, 주말에는 오후 1시부터 8시까지 이용 가능하다.

▶ 새로운 개념의 신식 사우나 ◀

사우나 레스토랑 쿠마(Saunaravintola Kuuma)

📍 <https://saunaravintolakuuma.fi>

탐페레 중심부 탐페레 최대 항구이자 광장인 라우콘토리 광장 옆에 위치한다. 레스토랑을 겸하고 있는 새로운 개념의 신식 사우나다. 카페와 레스토랑, 2층짜리 대형 테라스, 두 개의 사우나가 들어서 있으며 테라스가 뒤편 호수를 바라보는 형태로 설계돼 있다. 사우나를 즐긴 뒤 수영장에서 몸을 식힐 수도 있고 수영장과 연결된 호수로 뛰어들어 전통 방식의 사우나를 즐겨도 좋다. 평일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토요일에는 정오부터 이용 가능하며 입장료는 10유로(약 1만3천 원)부터다.



루돌프 기다리는 초록 협곡 철길 마을

봉화 분천역

사진·글. 유지혜(홍보팀)



어디선가 아이의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듯 산타 조형물이 인자한 표정으로 맞이하는 산타마을이 있다.

빨강과 초록의 선명한 색채감이 동심을 자아내는 분천역이다.

산골 오지의 스위스 풍 건축물이 생경하게 느껴지지만 제법 조화롭게 어울린다.





▶
실제 엽서를
보낼 수 있는
산타 우체국 전경



▲
분천역과 체르마트역 자매결연을 기념하는
표지판이 걸려있다.



▲
나무벤치와 빨간 벽면, 난로가 어우러져
아늑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역사 내부

1 고요한 산골 깨우는 명소

경북 봉화군 소천면 분천리는 200여 명 주민이 거주하는 작은 산골 마을이다. 여우천에서 내려오는 냇물이 갈라져 낙동강으로 흐른다 하여 '부내'로 불린 이 지역은 일제 때 한자어 분천(汾川)으로 개명됐다.

분천역은 마을의 중심에 위치해 1957년부터 오랜 세월 주민의 발로 역할해오고 있다. 2008년 화물취급은 중단됐지만 백두대간 협곡열차의 기착지가 되면서 수많은 여행

자들이 찾는 명소로 떠올랐다. 협곡열차 운행 직후에는 일일 최대 1천여 명 가까이 방문할 정도로 인기몰이를 했다. 관광열차 외에도 강릉역, 동해역, 부천역, 동대구역 등으로 가는 무궁화호 열차가 1일 8회 운행되고 있어 분천리 마을은 조용할 새 없이 바쁘다. 현재 울진역까지 가는 분천~울진선도 개통을 추진 중이어서 분천역은 제2의 전성기를 맞을 예정이다.



분천역 풍경

산타마을

바이-트레인



◀
역 앞마당에 설치된
산타와 루돌프
썰매가 365일
성탄 분위기를
물씬 풍긴다.



▶
형형색색 의자가 늘어진
분천역의 인기 포토존



▲
국내 최초 산타마을로 지정된
분천역의 앙증맞은 표지판이
관광객을 맞는다.

분천역 풍경



산타마을

트리아트레인

2 1년 365일 크리스마스

분천역은 365일 성탄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산타마을로 불린다. 2013년 스위스 마테호른 산기슭에 위치한 체르마트(Zermatt)역과 자매결연을 맺은 것을 계기로 2014년 한국-스위스 수교 50주년을 맞아 국내 최초의 산타마을로 조성됐다.

스위스 풍의 이국적인 외관으로 꾸며진 분천역은 곳곳이 촬영 명소다. 스위스 전통 목조 가옥과 스위스 기차역의 상징인 몬데인 시계, 다양한 산타조형물과 크리스마스 트리·장식

이 가득하다. 1시간 정도면 충분히 관람하지만 역 인근에 2.2km 체르마트길이 조성돼 있어 트레킹을 즐기기에 좋다. 분천역 산타 우체국에 비치된 우체통에 편지를 넣으면 정해진 요일에 수신인에 발송된다. 12월에 맞춰 크리스마스 카드를 보내고 싶다면 노란 우체통을 이용하면 된다.

산타 캐릭터 모형과
조형물들이
역 외관 곳곳을
장식한다.



▶
통유리창이
시원하게 펼쳐진
브이-트레인 내부



3 백두대간 달리는 아기호랑이

백두대간 협곡구간을 운행하는 국내 최초 개방형 열차인 브이-트레인(V-train)은 경북 봉화에서 강원 태백까지 운행하는 관광열차다. 백두대간 협곡 모습을 본 떠 붙인 이름이다. 열차에 그려진 호랑이 캐릭터 덕에 아기백호라는 귀여운 애칭으로 불린다. 브이-트레인은 중부내륙지역에서 아름답기로 손꼽히는 분천~양원~승부~철암역 27.7km 구간을 지난다. 벽면이 전면 유리로 돼 있어

협곡을 지날 때면 아래로 절벽, 위로는 바위산의 장엄한 풍경이 시원하게 펼쳐진다. 분천역에서 철암역까지 1시간 7분 정도 소요된다. 탑승 시간이 아쉽게 느껴질 경우 시간만 잘 맞추면 분천~철암역 왕복도 가능하다. 🌄

▲
분천역은 브이-트레인 출발역이자
동해산타열차의 종착역이다.



모바일기기로 QR코드를 찍으면
에쓰-오일 페이스북에서
인근의 다양한 정보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 백두대간 협곡을 가르며 달리는 브이-트레인 열차 모습





지식 한 뼘

인류애가 낮은 따뜻한 과학에 주목합니다. 환경과 문화, 관습, 경제 등 글로벌 지역 여건을 배려한 적정기술을 들여다봅니다.

초원 위 온돌방

몽골은 1년 중 3분의2가 겨울이다. 그중 3~4개월은 섭씨 영하 30도의 혹한기다. 이동식 천막주택인 게르(Ger)에서 살아가는 유목민에게 난방은 생명과도 같은 최소한의 온기다. 이에 우리나라 연구진과 민간구호단체가 손잡고 몽골식 온돌을 개발해 대대적인 보급에 나섰다. 유목민의 좋은 이웃, 지세이버(G-Saver)다.

지세이버

글. 김찬중(한국원자력연구원 책임연구원
<적정기술, 현대문명에 길을 묻다> 저자)

지세이버의 가치는?

☑ 효과

환경·보건 개선·일자리 창출·
판매 수익 통해 빈곤층 구제

☑ 기술

장시간 보온과 느린 열 방출
속도로 난방 효과 증대

☑ 보급

현지에서 조달 가능한 재료
로 현지 공장에서 생산

우리나라 온돌에서 착안한 난방장치 지세이버

맥반석·진흙·철을 포함한 돌을 이용해 만든
온돌 개념의 적정기술 프로젝트

- ▶ 탄 사용 감소로 호흡기 질환 예방
- ▶ 연료비 45% 절감



적정기술(Appropriate Technology)

지속가능한 지구환경을 추구하는 인간중심적 기술로서
1965년 칠레 산티아고에서 유네스코 주최로 열린 콘퍼런스를 통해 처음 소개됐다.
지역의 문화·관습·경제·환경에 적합한 간단한 기술로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데서
'적정'이란 단어를 사용한다. 생산 비용이 적게 들고 유지·보수·사용법이
쉬워야 한다는 조건을 갖춘다.

푸른 초원 무색한 대기오염

게르는 몽골 환경에 적합하게 만들어진 이동식 주택이지만 난방에 취약한 구조 탓에 쇠로 된 난로로 하룻밤을 보내려면 연료(탄)를 여러 번 집어넣어야 한다. 탄을 구하지 못할 경우 유독물질이 나오는 페비닐이나 페타이어를 태우기도 한다. 유엔환경계획* 보고서(UNEP, 2018)에 따르면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는 대기 오염이 국제 허용 기준의 12배를 초과하고 호흡기 질환을 앓는 어린이가 다른 지역보다 15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결사로 나선 제품이 지세이버다. 몽골 천막주택인 게르와 좋은 친구란 뜻의 굿네이버스(Good neighbors), 친환경 녹색인 그린(Green)을 의미한다. 여기에 열저장을 의미하는 세이버(Saver)를 합쳐 이름 지어졌다. 의미 그대로 몽골 현지인들의 환경 친화적이고 유익한 친구로 자리매김했다.

*지구환경 문제를 다루기 위해 1972년 국제연합 산하에 설립된 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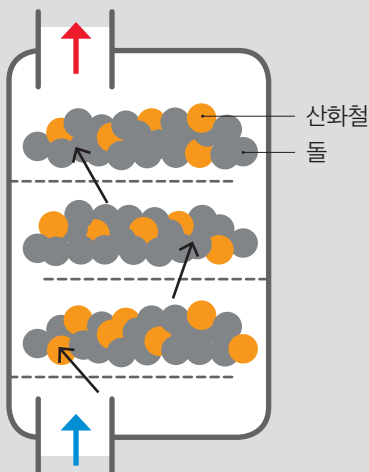
12배



1호

대한민국 적정기술 1호

지세이버는 온돌의 열을 저장하는 원리에서 착안해 개발된 대한민국 적정기술 1호 제품이다. 코이카(KOICA, 한국국제협력기구) 국제개발 전문가로 몽골에 파견된 김만갑 교수가 몽골 천막주택의 난로 효율을 높이기 위해 고안해낸 장치다. 국내 환경 관련 기관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몽골에 최적화된 난방 장치를 개발하기 위해 연구를 거듭한 결과다. 온돌과 같이 난로 중간에 돌을 집어넣으면 돌이 열을 흡수해 오랫동안 보온이 되고 열 방출속도가 느리다. 그는 몽골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맥반석과 진흙, 철을 포함한 돌들을 구해 금속 틀 안에 순차적으로 쌓았다. 여러 번 실험을 반복한 뒤 가장 열효율이 좋은 조건을 찾아냈다.



환경·보건·일자리 기여

지세이버 사용으로 연료비가 45% 절감됐다. 하루 네 번 정도 난로에 연료(탄)를 넣는 횟수가 2회 감소한 만큼 탄소 배출권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유해물질에 의한 호흡기 질환 예방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2009년에는 굿네이버스 추진으로 사회적기업인 굿쉐어링(Good Sharing LLC)이 설립돼 지세이버 대량 보급이 체계적으로 진행됐다. 울란바토르와 자브항 공장에 90여 명의 행정·생산직 현지 직원들이 고용되면서 지역 일자리 창출로 이어졌다. 제조업 산업이 빈약해 일자리가 부족한 몽골에서 사회적기업 설립은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45%

10만대

천막주택 생활 혁신적 개선

민간후호단체인 굿네이버스는 지세이버를 대량 생산해 몽골에 보급하고 있다. 무상이 아닌 보조금 포함 가격으로 판매된다. 수익을 얻기보다 사회적기업을 설립해 몽골 저소득 계층 주민들의 천막주택의 생활을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현재 보급된 지세이버는 총 10만 대로 판매 수익 일부는 빈민구제에 사용되고 있다. 굿네이버스는 주민들에게 사용방법을 가르치고 장기간 사용 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보완해나갔다. 몽골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굿네이버스와 함께 보급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함께하는 풍경

최선을 다하는 동료와의 시간 속에 다채롭게 펼쳐진 이야기를 공유합니다.

성장의 기쁨



토스트마스터즈 오픈하우스 행사

글. 이계영(CEO실)
사진. 유지혜

더없이 소중한 만남의 장

우리회사 토스트마스터즈(Toastmasters, 이하 토마) 클럽 1주년을 맞아 11월 11일 오픈하우스 행사를 개최했다. ‘오픈하우스’란 토마 미팅에 게스트를 초청해 참관하고 경험을 나누며 신규 회원을 모집하는 행사다. 10월 후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오프라인 행사로 기획했다. 오랜만에 한 자리에 만난 멤버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5층 대회의실에 풍선을 붙이고, 오픈하우스 플래카드를 만들어 내걸었다. 사내 공지도 미리 올려 게스트 모집에 나섰다. 마치 돌잔치를 준비하듯 즐거운 경험이었다.

이번 오픈하우스 행사에는 기존 멤버들을 비롯해 많은 게스트가 참여했다. 경영위원회(Management Committee) 멤버인 박봉수 사장님과 조영일 수석부사장님, 안종범 수석부사장님 그리고 박성우 부사장님을 비롯해 사내 직원들과 한국 토마 본사에서 나온 교육팀 3명까지 총 서른 명이 함께해 자리를 빛냈다. 원거리에서 참여하지 못했던 울산 토마 회원들은 사전에 1주년 축하영상을 만들어 보내줬다. 영상을 뚫고 나오는 에너지 넘치는 응원에 힘입어 활기찬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소통과 리더십의 기술

행사는 올해 10월 새로 선출된 토마 프레지던트 우형진 사우의 오프닝으로 시작했다. 미경제지 포천 500대 글로벌 기업들 중 300곳이 사내에 토마 클럽이 있다는 통계를 전하며 단합된 자부심을 공유했다.

과보고도 진행됐다. 지난해 9월 시작한 이래 현재 본사·공장을 포함해 총 32명의 회원들이 활동 중이다. 멤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도움으로 성장해나가는 기쁨을 함께 나눴다. 특별 게스트로 참석한 박봉수 사장님의 축사가 이어져 의미를 더했다. 더 많은 직원들

홍 스피치 실력을 기르는 시간이 마련됐다. 각 상황에 대한 멤버들의 재치 있는 답변에 분위기가 유쾌함으로 무르익었다. 방역 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성공적인 행사를 마친 뒤 게스트들의 신규 회원 등록이 이어져 뿌듯한 성과를 남겼다. 🌻



이 참여해 소통 기술을 배우고 리더십도 키울 수 있기를 바란다는 격려의 메시지였다. 이에 초대 토마 클럽 대표를 맡은 정태련 전 한국 토마 본부 대표가 축사에 화답했다. 대중연설 능력과 리더십 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토마에서 수년간 활동한 이야기가 흥미롭게 전개됐다. 각 멤버들이 각자 역할을 소개하는 시간을 짧게 가진 뒤 세션별 발표가 진행됐다. 대중연설 세션에서는 김수민 사우와 김윤정 사우가 아이스 브레이킹(Ice breaking)에 대해 발표하며 코로나19를 주제로 참석자들에게 질문을 던져 집중도를 높였다. 다음 세션인 테이블 토픽(Table topic) 세션에서는 즉





세월 깃든 지혜의 서

임원 가족 책 기증 사연

글. 편집실 사진. 유지혜

오랜 것들의 진중한 가치를 나누기 위해 70년 넘도록 간직한 물품을 선뜻 내놓은 어른이 있다. 강민수 부사장 부친이자 '강한수 장학회'를 이끄는 강삼병 회장 사연이다. 영관급 장교로 예편한 뒤 국방부에서 정년퇴임한 강 회장은 육군 중위 근무 중 순직해 국가유공자로 추서된 막내아들의 뜻을 기리고자 장학회를 설립했다. 22년 세월 동안 170명이 넘는 아들 후배들의 대학 등록금을 지원해오고 있다.

11월 6일 송파구청에서 박성수 구청장 주재로 진행된 기증식 행사를 통해 강삼병 회장은 송파책박물관에 1940~50년대 초·중등 교과서와 학습노트, 참고서 등을 기증했다. 이 자리에서 박 구청장은 “어려운 시절의 학업에 대한 열정을 요즘 세대와 공유해 공감할 수 있는 귀한 자료”라며 기증을 반겼다. 이에 강 회장은 “전국 최초의 공립 책박물관인 송파책박물관에 자료를 기증하게 돼 영광”이라며 “내 학창시절 책들의 소장가치를 높이 평가해주고 영구 보존한다니 고마울 따름”이라고 소회를 전했다.

기증품은 해방 이후부터 6.25전쟁 전후에 나온 인쇄서적으로 스무 권에 이른다. <2학년 국어>(1946), <5학년 농사짓기>(1948), <6학년 초등 선풍본>(1949) 등 교과서들이 포함됐다. 출판 환경이나 보존 기술이 녹록치 않았을 상황에 비추어 참으로 온전한 상태다.

이 가운데 종이가 귀했던 시절 비료포대를 이용해 면실로 꿰매어 직접 표지를 만들고 필기한 노트가 눈에 띈다. 정성스런 필체는 한 자 한 자 뜻을 새기며 동심의 꿈을 그려 나갔을 노신사의 어린 시절로 읽힌다. 줄곧 1등을 놓치지 않았던 어린이는 훗날 법과를 거쳐 행정대학원을 마

쳤다. 여전히 소장 중인 상아탑 시절 육법전서(1956)는 포켓 판형을 갖춰 이마저도 희귀본이다. 1998년에 착수해 2년여 만에 완필한 성경 필사본은 정진석 추기경의 축복장과 나란한 자리에 놓여 기록의 귀중함을 가르친다.

서예에 조예 깊은 강삼병 회장이 벽에 걸어둔 여러 작품 중 예서를 짚으며 그간 인연들을 돌이켰다. 때마다 똑같이 찍혀 나오는 연하장을 보내와도 허투루 버릴 수가 없다. 책장 저 높이 묵직하게 올라앉은 앨범에 차곡차곡 끼워 넣고 보내온 사람 마음을 생각한다. “그 고마움에 화답해 신년이면 복을 들이라는 글씨를 써주니 즐겁습니다. 별 게 무어가 있겠습니까. 새벽에 일어나 글 쓰고, 탐독하고, 운동하며 아내와 가꾸는 작은 화초들로 계절을 깨닫는 것이 행복이지요.” 나이를 잊게 하는 그 간명한 지혜 곁에서 책도 선불리 낚을 리 없다. 🌻



함께하는 온기

에너지 빈곤 가정 난방유 지원

우리회사가 올해 1억5천만 원의 기부금으로 에너지 빈곤 가정에 난방유를 지원하는 ‘호프 투 유, Hope to You(油)’ 캠페인에 동참했다. 기부금은 전국 사회복지기관을 통해 선정된 저소득가정과 독거노인·장애인·다문화가정 등 총 225가정에 난방유(등유)를 제공하는 데 쓰인다.

전달식이 진행된 11월 12일에 후세인 알 카타니 CEO는 서상목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과 만나 어려운 이들의 겨울철 안위를 염려하며 이웃 가정을 돌아봤다. 서울 서대문구의 한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한 알 카타니 CEO는 “올해 유독 추위가 빨리 찾아왔는데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한겨울에도 난방을 하지 못하는 이웃이 적지 않다”며 “우리의 작은 손길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에너지 빈곤층은 적절한 수준의 에너지 소비를 감당할 경제적 수준이 안 되는 가구를 지칭한다. 저소득가정에서 주로 사용하는 등유의 경우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에너지 구입비용에 대한 부담이 크다.

우리회사는 경제적인 어려움 탓에 겨울철 난방 기구를 원활하게 쓰지 못하는 가정 대상으로 2015년부터 난방유 지원 활동에 나서고 있다. 정유 업종의 특성을 연계한 사회공헌의 일환이다. 



알 카타니 CEO와
서상목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이 만나
서울 서대문구의 독거노인 가정 방문에
나섰다.



에너지 빈곤 가정을 대상으로 한
우리회사의 난방유 지원 활동은
2015년부터 6년째
지속되고 있다.



우리회사는
‘호프 투 유, Hope to You(油)’
캠페인 일환으로
올해 1억5천만 원을
기부했다.

의로움으로 뜨거운 심장

올해의 시민영웅 시상



세상을 빛내는 영웅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었다. 그중 19명이 올해 시민영웅에 이름을 올렸다. 우리회사는 11월 30일 본사 대강당에서 '2020 올해의 시민영웅 시상식'을 열고 시민영웅들에게 상패와 상금 총 1억4천만 원을 시상했다. 부상자와 활동자가 포함된 시민영웅은 일상 중 위험에 처한 이웃을 구하기 위해 용기와 기지로 의로운 희생을 실천한 주인공들이다. 이날 시상식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방역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간소하게 진행됐다. 현장에는 후세인 알 카타니 CEO와 서상목 한국사회복지협의회회장을 비롯해 시민영웅들이 저마다 홀로 참석했다. 가족이 동참해 축하와

격려의 마음을 나누던 일상을 그리는 마음이 모두 한결같았다. 올해 시민영웅들은 저마다 아찔한 상황에서 자신의 안위도 잊은 채 이웃을 위해 투신했다. 7월 전남 고흥군 한 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인명구조 사다리 하부를 지지해 사람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도운 신동준 씨, 자신이 거주하던 강원도 양양읍 원룸 건물에 화재가 난 것을 발견하고 사람들에게 알려 대피시키고 구조를 도운 알리야크바르 씨, 강원도 양구지역의 집중호우로 밭에 고립된 농민을 구조하는데 기여한 김길영 씨 등이 차례로 단상에 올랐다.

알 카타니 CEO는 “우리 곁에 이토록 의로운 시민들이 많다는 것에 크게 감명 받았다”며 “이런 숨은 영웅들과 함께하면서 에스-오일 또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지킴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우리회사는 2008년부터 13년 동안 위험 상황에서 이웃을 구한 시민영웅 총 249명을 발굴했다. 이들 의인에게 후원한 금액은 18억 원에 이른다. 🌻



시민영웅 활약상



부상자

신동준(22세)

한 병원의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이 사다리 설치하는 것을 목격하고 하부를 지지함. 떨어지는 유리 파편으로 인해 열상과 화상을 입었지만 부상을 감수하고 7명 인명을 구조하는 데 크게 기여함.

알리야크바르(28세)

원룸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곧바로 건물로 뛰어들어가 “불이야”를 외치며 주민 10여 명을 대피시킴. 곧이어 건물 외벽에 설치된 가스 배관과 TV 유선 줄을 통해 2층 원룸에 대피하지 못한 인명을 구조함.

활동자

김길영(52세)

집중호우로 인해 물이 범람하자 119구조대원들을 도와 자신의 굴삭기로 밭에 고립된 농민 2명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구조함.

신정훈(32세)

왕복 3차선 도로 내리막길에서 어린이 2명만 탑승한 채 정차한 차량이 제동장치가 풀려 굴러가는 것을 발견하고 도로를 가로질러 재빨리 뛰어가 차량을 멈춰 세움.

이승택(31세)

딸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범의 SNS 지시에 따라 출금하려던 고객의 상황을 확인하고 피해를 신속하게 방지함.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네 차례에 걸쳐 1천700만 원의 금융사기를 예방함.

이창민(56세)

제주 해상에서 조업 중 화재가 발생한 채낚기 어선을 발견하고 자신의 배로 화재 어선의 선원 7명 전원을 구조함. 화재가 진화된 선박을 세화항으로 예인해 선박구조에도 크게 기여함.

이인호(46세)

금은방 주인에 상해를 가하고 금품을 훔쳐 달아나려던 강도를 주인의 외침을 듣고 200m를 뒤쫓아 붙잡음.

이종태(44세)

차량 수십 대가 추돌해 불길에 치솟고 유독가스가 발생하는 터널 사고 현장에서 대형트럭에 덮쳐 찌그러진 승용차를 발견하고 맨손으로 문을 뜯어내 뒷좌석의 아이를 안전하게 구조함.

정규철(28세)

PC방에서 요금문제로 다투던 범인이 아르바이트생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장면을 목격하고 범인을 제지함. 순간 범인이 옷 속에 숨겨둔 다른 흉기를 꺼내 들자 몸싸움 끝에 흉기를 빼앗고 제압해 출동한 경찰에 인계함.

최문호(52세)

둔치 산책로를 지나가던 중 할머니의 다급한 외침을 듣고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아이를 발견한 뒤 즉각 물 밖으로 구해내 심폐소생술로 생명을 구함.

염경호(59세)·조현숙(51세)

인근 해상에서 통발조업을 하던 어민 부부로서 미역 채취 중 암초에 부딪쳐 전복된 어선이 급격히 가라앉는 것을 발견하고 다급히 사고해역으로 이동해 선원 전원을 구조함.

김봉석(61세)·수프리야디(23세)

갯벌에서 어패류를 채취하던 8명이 물때를 인지하지 못해 물이 허리까지 차올라 고립된 상황에서 해양경찰의 구조지원 연락을 받고 사고현장으로 이동해 해상에 표류중인 고립자 2명을 안전하게 구조함.

고대권(45세)·박성안(35세)

섬진강 범람으로 대규모 침수피해가 발생하자 어업용 소형 동력어선을 이용해 구조대원들과 함께 모텔 투숙객 17명과 고립된 70여 명의 주민들을 구조함.

최병국(23세)·강창원(22세)·강충원(22세)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은 뒤 이에 속은 것처럼 연기에 접선 장소에서 돈을 받으려 온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직접 붙잡아 경찰에 인계함.



귀하게 지킨 안전 기록

무재해 500만 안전인시 돌파

우리회사가 11월 16일 무재해 500만 안전인시를 돌파했다. 이로써 창사 이래 세 번째 무재해 500만 인시 기록을 달성했다. 후세인 알 카타니 CEO는 이튿날 공장 현장을 찾아 임직원들을 격려하고 모두와 함께 무재해 돌파 기록의 의미를 되새겼다.

“안전은 모든 사업의 출발점이자 도착지입니다. 나와 여러분을 포함한 동료, 가족, 이웃, 사회, 그 모두의 존속과 행복은 안전을 기반으로 합니다. 공장 운영의 갖은 어려움 속에서도 예외 없이 절차를 지키며 안전 가치를 이루고자 땀 흘린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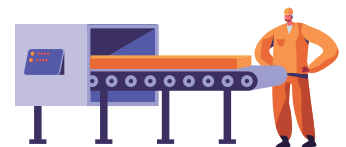
이번 기록은 지난해 10월 22일 이후 392일 동

안 단 한 건의 인명 사고 없이 공장을 안정적으로 운영한 결과다. 이 기간에 우리회사는 세 차례의 대규모 정기보수 작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인력과 장비로 첨예하게 돌아가는 현장 상황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했다. 특히 작업 전 위험성평가를 통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담당 부서와 외부 전문 안전 점검원들에게 책임 구역을 할당해 체계적 점검을 지속함으로써 사고 위험성을 제거했다.

아울러 우리회사는 최고 경영층이 참석하는 안전 회의(Safety Town Hall Meeting)를 분기별로 개최해 안전 화두의 개방적 소통을 통한 아이디어 발굴에 힘쓰고 있다. 또한 전사 안전관

리위원회·전사 안전최고책임자(Safety Chief Officer)를 신설하는 등 사내 안전문화 증진을 위해 전사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다.

알 카타니 CEO는 임직원들에게 “무재해 500만 인시를 돌파한 이후로도 우리의 안전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안전한 상태와 불안전한 행동을 발견하면 누구든 적극적으로 나서서 안전한 방식을 유도하고 함께 실천하자”며 “안전과는 절대로 타협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



언제, 어디서나, 안전!

안전 회의



후세인 알 카타니 CEO와 경영위원회(Management Committee)가 참여하는 안전 회의(Safety Town Hall Meeting)가 11월 18일 공장 임원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분기별로 이뤄지고 있는 안전 회의는 올해 마지막 논의의 장을 맞아 시의적절하고도 실질적인 사안을 의제로 택했다. Safety Talk 세션을 통해 겨울철 화재 예방과 안전수칙을 다룬 데 이어 직장 밖에서의 안전 증진 방안(Ways to promote 'Off-the-Job Safety')을 주제로 내걸고 2시간여 동안 밀도 높은 의견을 나눴다.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처럼 습관은 고치기 매우 어렵다. 이 점은 안전 영역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안전에 대한 생각과 행동이 회사 안에서와 퇴근 이후 다를 경우 안전한 행동 습관화에 큰 장애 요소가 된다.

업무 현장은 물론 직장 밖 안전은 곧 우리 인력과 생산성, 의료비용 등 손실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와 같은 공감대 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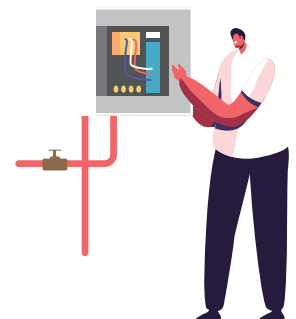
에 참가자들은 업무시간 이후 안전에 관한 아이디어들을 내놓으면서 날씨나 월별 테마에 기초한 생활안전 캠페인 등과 같이 일상과 밀착된 시행 방안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안전 관련 메시지로 직원과 가족, 이웃과 꾸준히 소통하며 친밀하고 긍정적인 인식을 강화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3개월 동안 국내외 기업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 사례를 공유하고 사고 사례 동영상 등을 통해 원인 분석과 권고안, 교훈 등을 짚었다. 알 카타니 CEO는 사우디아라비아 라스타누라 정유공장(Ras Tanura Refinery) 근무 당시 현장 경험을 상기하며 사례 분석을 통해 사고예방 전략과 실행방안 수립에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집중적인 논의를 마친 뒤 알 카타니 CEO는 “올해 마지막 안전 회의를 통해 안전에 관한 임직원의 헌신과 열정, 변화한 인식을 느낄 수 있었

다”고 소감을 밝혔다.

아울러 “작은 사고의 가능성부터 집중적으로 제거해 나가는 것이 곧 무재해 실현의 성공요소”임을 강조하면서 “내년에도 효과적인 소통과 사례 분석을 통해 근무하기에 가장 안전한 사업장, 사회 속에서 가장 안전한 기업으로 자리매김하자”고 격려했다. 



11년 연속 DJSI 월드 기업 선정

우리회사가 2020년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이하 DJSI) 평가에서 2010년부터 11년 연속으로 DJSI 월드(World) 기업에 선정됐다. 오일·가스정제(Oil & Gas Refining) 산업 분야에서 11년 연속 DJSI 월드 기업에 선정된 기업은 국내뿐 아니라 아시아 지역 정유사 가운데 우리회사가 최초이자 유일하다.

우리회사는 글로벌 수준의 경영 투명성을 바탕으로 사회와 조화를 이루며, 이해관계자의 기대사항을 경영활동에 충실히 반영해 왔다. 11년 연속 DJSI 월드 기업 선정으로 그간 노력을 다시 한번 인정받은 우리회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속가능경영을 실천해 나갈 예정이다.

DJSI는 미국의 금융정보 회사인 다우존스가 전 세계 2천500여개 글로벌 기업을 대상으로 지배구조, 윤리경영, 리스크 관리, 공급망 관리, 환경성과, 인적자본 개발, 사회공헌 등 경제, 사회, 환경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지속가능성을 측정하는 세계적 권위의 평가지수다.

Member of
**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Powered by the S&P Global CSA

2020년 DJSI 월드 지수에는 전 세계 시가총액 상위 2천540개 글로벌 기업 중 12.7%에 해당되는 총 323개 기업이 편입됐으며, 이 가운데 국내 기업은 우리회사를 포함한 17개사다.

희망온돌 따뜻한 겨울나기 기부금 전달

우리회사가 마포구청에 '따뜻한 겨울나기' 모금 사업을 통해 성금 5천만 원을 기부했다. 전달식은 11월 19일 마포아트센터에서 진행됐다. 이날 기부한 성금은 서울시공모금회 지정기탁을 통해 마포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쓰인다.

따뜻한 겨울나기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만·관 협력으로 수행하는 겨울철 이웃돕기 사업이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십시일반 성금과 함께 쌀, 김치, 연탄 등 물품을 모아 지역 내 취약계층 이웃을 위해 기부한다.

우리회사는 마포 일대의 랜드마크인 본사 사옥과 함께 기업시민으로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활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대한민국 CEO 명예의 전당’ 브랜드전략·정유/에너지사업 부문 수상

후세인 알 카타니 CEO가 ‘2020 대한민국 CEO 명예의 전당’ 시상식에서 2개 시상 부문(브랜드전략·정유/에너지사업)에 걸쳐 ‘올해의 CEO’로 선정됐다. 해당 시상이 제정된 이래 정유사 대표로서는 첫 번째 수상이다. 시상식은 11월 18일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개최됐다.

산업정책연구원이 주관하는 ‘대한민국 CEO 명예의 전당’은 차별화된 경영전략과 리더십으로 경제·산업 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최고경영자를 선정해 시상한다. 우리회사는 차별화한 브랜드 이미지 통합(BI, Brand Identity)

작업과 지속적인 통합 마케팅 커뮤니케이션(IMC, Integrated Marketing Communication),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통한 브랜드 가치 재고로 호평 받았다. 아울러 정유-에너지 산업에 대한 깊은 이해에 기반으로 리더십과 경영혁신을 발휘해 회사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고 있는 점에서 전문가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획득했다.



‘한국의 경영대상’ 브랜드경영 부문 종합대상 수상

우리회사가 ‘2020년 한국의 경영대상’에서 4년 연속으로 브랜드경영 부문 종합대상을 수상했다.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주관하는 한국의 경영대상은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우수사례 발굴·전파를 목표로 제정됐다. 학계와 산업계의 전문가 그룹 평가를 통해 브랜드경영을 포함한 총 10개 부문으로 시상한다. 우리회사는 차별화한 브랜드 경영 전략과 캐릭터를 활용한 일관성 있는 마케팅 활동, 고객만족을 위한 주유소 서비스(응대·청결)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100만 고객 모바일 주유권 이벤트

우리 계열주유소·충전소를 이용하는 보너스카드 고객 대상의 '좋은 기름으로 으라차차~ 100만 고객 모바일 주유권 이벤트'가 행운의 주인공을 기다린다. 두 번의 경품 응모기회를 제공하는 이번 이벤트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지속된다.

이벤트 대상은 우리 계열주유소·충전소에서 3만 원 이상 주유 또는 2만원 이상 충전하고 보너스카드 포인트를 적립한 고객이다. 이 가운데 총 100만 명을 추첨해 모바일 주유권 1천 원을 발송한 뒤 추가로 한 번 더 추첨을

진행한다. 추가 추첨 행운을 거머쥔 3만 명에게 주유소와 롯데마트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주유상품권(5만 원)을 비롯해 모바일 주유권(2천 원~3만 원), 구도일 블루투스 스피커, 낮잠쿠션 등이 제공된다. 한편 이벤트 기간 중 신규 보너스카드 고객 모두에게 모바일 주유권(3천 원)을 증정한다. 자세한 사항은 보너스카드 홈페이지(www.s-oilbonus.com)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확인 가능하다.



사보 <S-OIL> 디지털 전환

우리회사가 기업PR 채널 일환의 월간 사내보(제호 'S-OIL')를 디지털로 전면 전환한다. 이로써 1981년 12월(제호 '공장소식') 창간 이후 지속적으로 임직원 가정에 배송돼 온 사보는 통권 제469호를 끝으로 인쇄 및 PDF 형태의 제작이 종료된다. 디지털사보는 새해 1월 중 홈페이지(www.s-oil.com)를 통해 접속 경로가 공개되며, 이후 업데이트 소식은 뉴스레터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12

DECEMBER
2020

11.23

박지만 상무보(RFCC1공장장)→
상무보(RFCC2공장장)
심환승(1급.생산최적화팀리더)→
상무보(대행) RFCC1공장장

11.27

이환일 상무(RFCC2공장장) 퇴임

【 팀리더 임명 】

11.23

정기식(2급.생산최적화팀)→
생산최적화팀리더

【 보직변경 】

11.16

김낙중(3급.Polymer&Intermediate
운영팀)→PP영업팀

11.23

이정희(계장.생산회계팀)→영천저유소
허재원(계장.영천저유소)→생산회계팀
박선영(일반사무직2급.총무팀)→구매팀

11.26

김연실(일반사무직3급.판매기획팀)→
수송팀(본사)

11.30

최용훈(1급.자재관리팀)·이주영(2급.투자공
사팀)→기계설계팀
정문성(대리.Akylation1팀)→노사협력팀
이태경(주임.노사협력팀)→계기1팀
고준(주임.RFCC2팀)→자재관리팀

유태원(운전원.계기1팀)→RFCC1팀
이근현(운전원.자재관리팀)→Alkylation1팀
김용환(운전원.안전정책팀)→탈황3팀

【 정년퇴직 】

11.30 김동훈(1급.강남지사)
송희섭(1급.전주지사)

【 퇴직 】

12.2 김경수(4급.IR팀)

11.25 김성진(계장.RCFF1팀)
김준섭(4급.환경관리팀)

【 부임 】

11.12 손정원(PO/MTBE팀) 부친

11.16 오성환(정유2팀) 병부

11.17 김성준(법인영업팀) 병부
정주영(안전대응팀) 부친

11.19 김성완(RFCC2팀) 조부

11.20 박정현(VDU팀) 부친

11.22 우래구(아로마틱1팀) 병부
김홍민(에너지관리팀) 병부

11.23 김성복(광주지사) 부친
김상준(IT기획팀) 병부

11.24 이갑주(PX1팀) 병부

11.25 김기현(제품운영2팀) 모친
김샘터(동력팀) 조모

11.29 엄재만(탈황1팀) 외조모

12.1 이동현(동력팀) 병모

12.2 김경옥(장치2팀) 외조모

12.6 이정옥(자재관리팀) 부친

12.7 심용균(유통마케팅전략팀) 병부

【 결혼 】

11.21 이상은(탈황2팀)

11.28 정상익(기계설계팀)

11.29 김지윤(유통팀)
한상욱(PO/MTBE팀)
이정섭(MHC팀)

12.5 조정윤(RFCC1팀)
김수곤(제품출하팀) 아들
장태훈(검사진단팀)

12.12 박현수(PO/MTBE팀)
이세훈(경영개선팀)
백종현(PP영업팀)
박진휘(계전설계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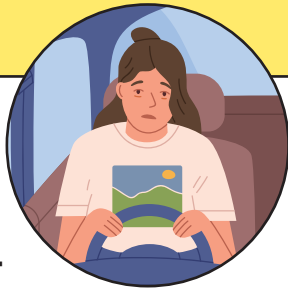
12.13 김태형(시설투자기획팀)

12.19 김대성(법인영업팀)

일상 지키는 안전

자료: 질병관리청·도로교통공단

음주운전 및 졸음운전은 절대 하지 맙시다



음주운전 형사적 책임

- ▶ 단순음주 :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 ▶ 부상사고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
- ▶ 사망사고 :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형

졸음운전

- ▶ 단순적발 : 30만 원 이하 벌금
- ▶ 사고발생 :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운전 중에는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휴대폰 사용을 하지 맙시다



안전벨트 미착용 시

- ▶ 교통사고 사망률 6배 증가
- ▶ 운전자·동승자에 과태료 3만 원 부과
- ▶ 13세 이하 어린이 탑승 시 과태료 6만 원 부과
- ▶ 6세 미만은 카시트 의무적으로 사용

올바른 안전벨트 착용법

- ▶ 팔로 벨트 느리거나 등 뒤로 빼는 행위 금물
- ▶ 허리띠는 복부가 아닌 어깨·골반뼈 지나는 곳에

보행 중에는 휴대폰 사용을 자제하고 무단횡단을 하지 맙시다



보행 중 휴대폰 사용 시

- ▶ 전방주시율 15% 감소
- ▶ 시야 폭 56% 감소
- ▶ 보행 중 문자사용 시 소리로 인지하는 거리 50% 감소

무단횡단 시

- ▶ 최대 2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과료

욕실바닥에 미끄럼 방지용 바닥재를 깔아 사고를 예방합시다



욕실 낙상사고 예방법

- ▶ 바닥 미끄럼 방지 처리를 하거나 표면에 요철이 있는 타일 사용
- ▶ 바닥 표면이 거친 욕실화 신기
- ▶ 바닥의 물기나 비누·샴푸 잔여물 제거
- ▶ 욕조에 샤워 커튼을 달아 바닥 물기 최소화
- ▶ 욕실 내 날카로운 물건 비치하지 않기

눈·비 올 때는 건물 출입구 바닥이 미끄러우니 주의합시다

낙상 사고 예방법

- ▶ 가벼운 외투 여러 겹 입기
- ▶ 낮은 굽·미끄럼 방지 밑창 신발 신기
- ▶ 걷는 속도·보폭 평소보다 10~20% 줄이기
- ▶ 평소 균형 기능 향상 운동·발목 운동하기



베란다·창문 주변에 받침대가 될 물건을 치워 사고를 예방합시다

100km 차량과 부딪히는 위험

- ▶ 과실로 인한 물건 투척으로 상해 입힐 경우 500만 원 이하 벌금
- ▶ 사망사고 발생 시 2년 이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

낙하물 사고 예방법

- ▶ 창밖으로 이불 털 때 주위 물건 치우기
- ▶ 복도·창문틀·옥상 난간에 물건 올리지 않기
- ▶ 아이들에게 낙하물 사고 위험성 가르치기



마스크 쓰기 및 손 씻기를 생활화하여 전염병을 예방합시다

마스크 착용 명령(과태료 부과) 대상

- ▶ 1단계 :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중점·일반관리 시설,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 경기장, 고위험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지자체에 신고·협의 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 ▶ 1.5단계 : 1단계 시설·장소+실외 스포츠 경기장
- ▶ 2단계 : 실내 전체, 위험도가 높은 활동이 이뤄지는 실외
- ▶ 2.5단계 & 3단계 : 실내 전체,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거나, 마스크를 착용했지만 입·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 과태료(10만 원 이하) 부과





독자마당

사내보 <S-OIL>은 사우 여러분의 참여와 관심으로 만들어집니다. 다양한 지면에 참여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문의: sabo@s-oil.com



<공감동화> [열정] - 피터팬
동화로 본 적이 있어요. 함께하는 세상은 행복해요.
한소미(탈황2팀 한도훈 사우 가족)



<읽고 듣는 오페라> 사랑의 묘약 - 남몰래 흘리는 눈물
생각보다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에
사보가 기다려지기까지 합니다.
하지우(계기2팀 하창원 사우 가족)



<터벅터벅 소도시> 세인트 앤드류스
코로나19로 인해 갑갑했던 마음을
사보로 해소해 봅니다.
이재식(PO/MTBE팀)

지난호 퀴즈 정답 · 당첨자

Quiz 01. 생활안전 아이콘

올바른 김치냉장고
관리법을 고르시오.

→ 정답.

②

제조 7~10년 주기로
안전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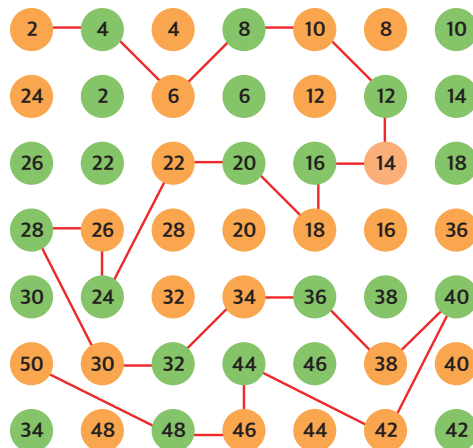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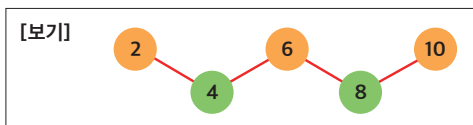


설치 시 습기나
먼지 낀 곳을 피하고
벽 사이 공간을 확보해
냉장고 열이 분산되도록 한다.

*자료 한국소비자원

Quiz 02. 즐거운 두뇌 훈련

아래 [보기]와 같이 '노랑-초록-노랑-초록'으로 교차해
2의 배수를 차례로 연결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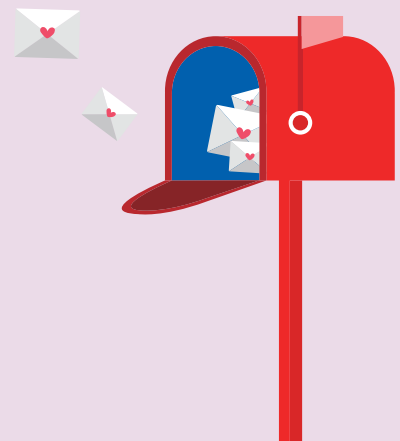
*자료 삼성서울병원 뇌 신경센터 '뇌 훈련 퀴즈'

블루투스 스피커

김경만(탈황1팀)
이동운(PX2팀)
이상준(PO/MTBE팀)
김명섭(안전대응팀)

휴대폰 보조배터리

김경섭(정유1팀)
최준일(Hydrocracker팀)
지상현(탈황1팀)
정연정(계기1팀)





<간이역 산책> 광주 극락강역
 알찬 구성에 감사합니다.
 멀리서 아들 보는 느낌으로 위안 받습니다.
 박세현(PP영업팀 박해진 사우 가족)



<두런두런 이야기방> 영남알프스 9봉 완등
 에세이를 기고한 사우의 도움으로
 한 달 안에 9봉을 완등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세억(탈황1팀)



<주요 경영활동> 제2 원유하역시설 완공
 우리 아빠가 무슨 일을 하시는지 알 수 있어요.
 진시완(Defect Elimination팀 진재환 사우 가족)

새로운 채널로 사보와 만나요!

새해부터

사보 <S-OIL>이 디지털 세상에 등지를 틍니다.

2021년 1월 중 홈페이지(www.s-oil.com)를 통해

접속 경로를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이후 업데이트 소식은 뉴스레터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제공됩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올해 사보 표지는 핵심가치를 통찰해 볼 수 있는
동화 이야기를 소재로 그려나갑니다.



사보 <S-OIL> 독자님, 안녕하십니까?



S-OIL 사보편집실입니다.

전 세계 팬데믹 상황 가운데 저마다 계신 곳에서 큰 노고를 쏟고 계실 독자 여러분,
항상 건강 지키는 나날 보내시기를 희망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당사는 기업PR 채널 디지털화의 일환으로 사보 <S-OIL>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월호(2020년 12월호)를 마지막으로 인쇄사보의 귀책 배송이 종료됨을**
안내해 드립니다. 그동안 인쇄사보 <S-OIL>을 통해 당사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고
깊은 관심과 사랑을 보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사는 앞으로도 **변함없이 디지털사보를 통해 친근한 소식으로 공감대를 이루고**
유용한 정보로 소통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디지털사보를 비롯해 당사가 다채롭게 펼쳐나가고 있는 기업PR 채널들에 대해
많은 성원 보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도전을 거듭하며 끊임없이 성장해 나가는 당사의 활동들과 새로운 영감을 전하는
긍정적인 이야기들을 다양한 채널에 성실히 담아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12월
S-OIL 사보편집실 드림